

# 여수시, 日 오염수 대응 '수산물 안전 확보' 온 힘

### 방사능 검사 연 160건으로 확대...전담반 꾸려 전통시장 등 지도 수산물 안전센터 건립·피해보상안 마련 위한 특별법 제정도 촉구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수시가 지역 수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여수시는 수산물 안전센터 건립과 피해보상안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정부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12일 여수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여획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연 94건에서 연 160건으로 확대한다.

대폭 확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는 매달 여수시 누리집과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 전광판 등에 공개할 방침이다.

여수시는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목포지원에 생산·판매 단계의 수산물을 수집해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해양수산과학원은 요오드, 세슘 등 방사성 물질 검출 여부를 여수시에 통보하고 있다. 이 같은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매달 10여 차례 이뤄지고 있다.

여수시는 수산물 검사 품종과 수거 장소, 검사 건

수 등 자료를 시민들이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홍보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5월 말에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위한 휴대용 측정기 4대를 1800만원을 들여 사들이면서 총 6대의 측정기를 갖췄다.

여수시는 지난달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으며, 대응 전담반(태스크포스)을 구성했다.

전담반은 여수시 수산경영과, 어업생산과, 해양정책과 등 3개 과 15개 팀 86명으로 구성됐다.

전담반은 3명이 1개 조를 이뤄 수산물 위판장과 전통시장, 양식장 등에서 수산물 방사능을 감시·측정하고, 원산지 표시를 지도·단속한다.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어업인 피해보상 업무와 정부 비축 수산물 구매사업 등도 담당할 예정이다.

또 '방사능 안전마을·안전어선 증명제 사업'과 '위판장 안전신포등' 관련 사업도 업무에 포함됐다.

같은 달 말에는 여수수협에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부, 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 생산자단체 등 100여 명과 '수산물 안전관리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여수시는 수산물 안전성을 강화하고 오는 2026년 열리는 여수세계박람회 개막의 먹거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수산물 안전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55억원의 시비를 투입해 돌산읍 우두리에 연면적 900㎡ 이상 3층 규모로 오는 2025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이곳에는 고순도 감마핵종 분석기(2대) 등을 갖춘 최첨단 수산물 안전센터를 구축한다.

내년부터는 바다 위에 있는 어업지도선에서 실시간 방사능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1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운영한다.

한편 일본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이르면 이달부터 약 30년에 걸쳐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하는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알프스)로 처리한 뒤 해저터널을 통해 원전에서 1km 떨어진 해양에 방류할 계획을 밝혔다. 원전 오염수가 해양에 방류되면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수산업 타격이 우려된다.

정재호 여수시 수산관광과장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방사능에 대한 시민들



여수시는 올해부터 여획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연 94건에서 160건으로 확대한다. 여수시 공무원들이 수산시장을 찾아 휴대용 측정기로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의 불안감이 날로 커짐에 따라 수산물 안전성을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검사와 홍보도 강화하겠다"며 "여수시민들이 안심하

고 수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안전한 수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희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 광양시, 중국 선전시 기업과 벤처 육성 논의

### 따공팡 아이메이커베이스 광양창조경제혁신센터 찾아

광양시는 최근 광양을 찾은 중국 선전시 기업 육성 관계자들과 벤처기업 육성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광양시에 따르면 중국 선전시 '따공팡 아이메이커베이스' 국제 기업 육성 관계자들은 광양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찾아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해당 기업은 중국 선전시에 본사를 두고 벤처 창업 육성을 하고 있다. 지난 2016년에 중국의 국가급 국민 창조공간으로 지정됐다. 서울과 대전, 일본, 싱가포르, 미국, 이탈리아, 캐나다 등에 업무 공간을 마련했다.

이번 광양 방문단은 정사(曾壽) 선전시 따공팡 국제유연 책임자와 노만호 따공팡 코리아 최고경영자(CEO) 등 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교류 회의에는 안현희 포스코 산학협력팀 벤처벨리그룹 팀장과 안성수 광양벤처밸리기업협의회 회장(에네테크글로벌 대표), 고대근 부회장(주식회사 에콤 대표), 김학운 총무(미르테크 대표),



중국 선전시 기업 육성 관계자들이 최근 광양을 찾아 벤처기업 육성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광양시 제공>

전정환 ㈜이엔엠 대표, 광양시 국제협력팀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두 기관은 완제품 또는 일부 부품에 대한 현지 생산·조달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중국 최초의 경제특구 도시인 선전시는 광양시의 국제 자매도시이다. 이곳에는 화웨이, 텐센트, 사오미, 비야디(BYD·전기자동차회사), DJI(드론회사) 등 유명 기업이 본사를 두고 있다. 광양시와는 지난 2004년 10월 국제 자매도시 협약을 맺고 경제와 문화예술,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하고 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국내 유일 광양 '소재전문과학관' 전시물 밀그림 완성

### 400억 투입 2026년 개관 목표

광양시에 들어설 예정인 '소재전문과학관'의 내부 구조와 전시실, 전시물 등에 대한 밀그림이 나왔다.

광양시에 따르면 최근 전문가 자문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립 광양 소재(Material)전문과학관' 전시물 제작·설치사업 중간보고와 자문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공립 광양 소재전문과학관은 소재산업에 특화된 광양만권 산업단지의 특성을 반영해 국내 최초 소재(Material)분야 전문과학관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광양시는 지난 2021년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문과학관 건립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도비 보조금 260억 원을 포함해 4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7010㎡의 과학관을 건립해 2026년 개관할 예정이다.

보고회는 광양만권의 소재 분야 특성을 살린 전시콘텐츠 구성을 위해 그동안 타지 과학관 사례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작성된 기본설계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듣고, 콘텐츠에 대해 검증하는 자리가 됐다.

전문가들은 ▲첨단미디어 영상의 주기적 교체에 대한 운영비 고려 ▲콘텐츠별 상시 운영인력 고려



공립 광양소재전문과학관 조감도.

▲각종 교육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전문가 채용 필요 ▲광양만권의 산업 특성 반영 ▲산업체와 협업 전시 필요 등 의견을 내놨다.

시는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보완해 전시물 기본설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오는 1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 건축공사를 시작해 2026년 개관까지

지 손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구영 광양시 관광과장은 "전문가 자문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산업체와 연계 협력을 통해 우리 지역에 특화된 국내 최초의 소재 분야 전문과학관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고흥군, 전기이륜차 구입비 최대 300만원 지원

고흥군이 대거 지원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한다.

보급물량은 일반 40대, 취약계층 5대, 배달용 5대 총 50대이며 사업비는 1억원으로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1대, 법인·기관은 3대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구매 지원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고흥군에 주소록 둔 16세 이상 군민과 개인사업자, 기업 및 기관·법인이다.

구매보조금은 차종별로 차등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 후 구매할 경우 20만원,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장애인, 차상

위 이하계층)이 구매할 경우 해당차량 국비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전남도내 생산제품을 구매할 경우 추가로 48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차종은 환경부 무공해자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군민과 개인사업자 등은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와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해 제조·판매사에 제출하면 된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

## 맨발로 순천만정원 한 바퀴

### 정원박람회 16일 '어싱데이'...순천만습지 등12km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는 오는 16일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과 오천그린광장에서 '정원 어싱(earthing)데이'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어싱은 맨발 걷기로 지구의 치유 에너지를 우리 몸으로 받아들인다는 치유법이다.

정원박람회 기간 국가정원, 순천만습지, 오천그린광장까지 총 12km의 어싱길에서 맨발 걷기를 체험할 수 있다.

어싱데이는 박람회장 전역에 걸쳐 조성된 어싱길을 중심으로 ▲스탬프 투어 ▲해설사와 함께하는 어싱 투어 ▲박람회 홍보대사 럭키(인도)·다니엘(독일)·알베르트(이탈리아)와 함께하는 원데이 어싱 스쿨로 구성됐다.

스탬프 투어는 오전 10시 국가정원 일원에서 진행되며 키즈가든(1.2km)과 개울길 광장(1.2km), WWT습지(0.8km) 3개 코스를 완주한 2000명에게 소정의 상품이 지급된다.

오천그린광장에서 오후 6시 시작하는 원데이 어싱 스쿨은 어싱 체험과 토크콘서트로 이뤄져 있으며, 홍보대사인 럭키·다니엘·알베르토가 참가자와 함께 할 예정이다.

원데이 어싱 스쿨 참여자는 오후 6시까지 국가정원 남문 게이트에 모이던 된다.

참가 부스는 당일 오후 5시부터 운영되며, 별도의 참가비와 등록 없이 신발주머니를 수령하고 참여할 수 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 세계유산 순천 갯벌·선암사 영상·사진 공모

### 축전위, 내달 27일까지

순천 세계유산축전위원회가 '2023 세계유산축전 홍보 영상 공모전(선암사·순천 갯벌 배틀 트립)'과 '2023 세계유산 여행 사진 공모전' 등 전국민을 대상으로 2개의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전국적으로 진행되며 영상 제작이나 사진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작품은 다음 달 27일까지 접수한다.

2023 세계유산축전 홍보 영상 공모전은 작품을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고 신청서 품을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다음 달 31일 발표할 예정이다.

최우수상 1명 200만 원, 우수상 2명 각 100만 원, 장려상 4명 각 30만 원, 입선 10명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2023 세계유산축전 여행 사진 공모전은 선암사와 순천 갯벌 사진을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후 신청서 품을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매주 세계상 10명(기프트콘 3만 원), 축전상 20명(1만 원)에게 상금을 준다.

자세한 공모전은 순천세계유산축전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순천세계유산축전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위원회는 수상작을 올해 8월 한 달간 개최되는 '2023 세계유산축전-선암사·순천 갯벌' 공식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재근 순천 세계유산축전위원장은 "공모전이 순천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선암사와 순천 갯벌의 다양한 가치를 발견하고, 기발한 사진과 영상이 제작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 보성 이레그린, 장애인 여름나기 제품 기부

### 4천만원 상당 모기 퇴치기

보성군은 (주)이레그린이 지역 중증 장애인들을 위해 4000만원 상당의 모기 퇴치기를 기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레그린은 해충 관련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위생제품 전문 브랜드를 대표하는 사회적 책임 기업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지난달 22일 기부된 모기 퇴치기는 사랑의 열매와 연계해 보성군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강재경 (주)이레그린 대표는 "모기와 해충이 많아지는 여름철에 보성군의 저소득 중증장애인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드리고자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보성군에 관심을 갖고 기부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관내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강재경(왼쪽) (주)이레그린 대표와 김철우 보성군수.

있도록 보성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